



문화재 보전의 '업그레이드'



이기선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얼마 전 흥미로운 외신보도를 보았다.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 있는 유명한 '미로의 비너스(Venus de Milo)'에 관한 기사였다. 이 상은 예게 해에 있는 퀴크라데스 제도(諸島)의 하나인 메르스섬에서 1820년에 발견되었으므로 '미로의 비너스'라 불리게 됐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상은 비록 두 팔이 없지만 많은 비너스상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고 있는, 세계적인 지보(至寶)이다. 보도의 내용은 최근 잃어버린 두 팔을 찾아냈는데, 두 팔을 복원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로 둘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도처에 있는 목이 잘린 불상들의 모습이다.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이야기이지만 이제 우리 문화재 보전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뀌어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원형을 보전해야 하겠으나, 때로는 이미 원형을 상실한 문화재 가운데 현 상태로 그냥 두는 것보다 지금까지 거둔 학술적 성과를 원용하여 원형을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탑과 불상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무너진 탑을 수복(修復)하는 경우, 없어진 일부 석재를 새로 만들어 끼워 넣어 탑을 세우고 있다. 얼굴은 인체에서 가장 잘 따는 부분으로, 외부에 드러난 인격(人格)을 상징한다. 하물며 불자들 예경의 대상으로 조성된 불상에서 머리가 없는 채 또는 조잡하게 임의로 불두(佛頭)를 조성한 경우도 있음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현재의 관리 방식은 반쪽의 문화재 보존(保存)이라 생각된다. 이제 문화재를 아끼고 지키는 일에도 열린 의식이 필요하다. 시ết말로 문화재 보전도 업그레이드하자.

삼성 SDI 선재동자원에 기금 전달



의정부 선재동자원(원장 지산) 68명의 전신불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삼성SDI 자원봉사팀 '사랑의 빛'은 9월 5일 선재동자원 요사채 신축에 써 달라며 '사랑의 빛 펀드'를 통해 모금한 5천만원을 전달했다. 68명의 선재동자원생들은 그동안 비좁은 컨테이너 건물에서 힘든 생활을 해 왔는데 그것마저도 지난 8월 화재로 전소돼 텐트에서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문숙씨

러, 달라이 라마 입국 불허



러시아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입국 불허 방침을 재차 시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9월 4일 성명서를 통해 "달라이 라마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는 국외와 국제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티베트를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영토로 간주한다"고 밝혀 입국 불허 방침을 내비쳤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을 비롯해 모두 2차례에 걸쳐 달라이 라마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필자는 15년 전 독일의 불푸스부르크에 있는 폴크스 바겐 자동차공장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독일의 노동자들과 똑같이 현장에 투입되어 조립라인에서 일했다. 당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서 공장에서 기쁨때를 넘으며 느낀 점은 작업시간의 효율적 분배와 생산라인의 인체공학적인 배려가 일의 능률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업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독일인들의 직업의식이 놀랍고 부러웠다. 이미 그 당시 독일에서는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말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냈다. 또한 자기 계발을 위해서 취미활동에 열중했다. 역시 좋은 제품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단순히 노동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분배, 노동자들의 작업의욕과 창의성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주5일제 근무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의식에 달려있다. 독일인들은 자신의 직업(Beruf)을 신이 자신에게 내려준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철저한 소명(召命)의식을 갖고 일한다.



불자 세상보기

최종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정명(正命)'과 주5일제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주5일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고 올바른 버릇을 키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부처님을 닮아 가는 길인 팔정도에서 정명(正命)은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대답을 하고 있다.

진리에 비추어 이루어진 올바른 행위는 당연히 바른 생활을 하게 되며, 바른 직업을 통해서 바른 의식주를 영위하게 된다. 정업이 개인적인 자원의 의미가 강조된 행위라고 한다면, 정명은 사회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성격을 갖는다. 각자의 생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루에 모자를 백 개 만드는 사람이 그가 만든 모자를 자신이 모두 쓰고 다니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다닌다. 사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자를 만드는 것이다. 왜 일을 하는 것인가? 이웃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 연기법을 깨닫고 사는 것을 정명이라고 한다. 주말의 여가시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정신없이 깨머처럼 일만 하는 생활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개미는 다른 곤충들이 먹어야 할 것까지 다 걸어들인다. 개미의 부지런한 모습이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미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일하는 욕심꾸러미다. 미안한 사람들의 입장을 보자. 그들은 매일 귀가 길에 꽃을 사들고 불전에 봉헌하는 것으로 하루의 생활을 마감하고 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금반을 사서 불상에 일만 하는 생활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고 있다. 부처님이 생활의 중심에 계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지금껏 물질적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왔다면, 다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부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주5일제를 받아들이는 불자들의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마당

체험하며 스스로 느끼는 교육 됐으면

법현스님(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불교환경연대 주최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태학교를 4차에 걸쳐 시행했다. 산, 강, 바다를 주제로 북한산, 신록사, 부석사 등지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자연해설로 어린이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뒀다. 필자는 출가 이후 여러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며 부처님의 교리를 하나하나 더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주일식 위주의 종래 학습교육을 답습했다. 그러나 이번 생태학교를 운영하며 느낀 것은 구태여 어린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1회때 유치부로부터 참가한 어린이가 죽어있는 벌을 보고 아프니까 이빨을 덮어줘야 한다며 낙엽을 덮어 필자의 가슴을 적신적이 있다. 이제는 종래의 주일식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태학교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박종환(서울 방산초등학교 6)

여름방학체험학습 속에 중 환경체험을 선택했다. 불교환경연대에서 주관하는 생태학교에 등록한 후 천년고찰 부석사에 도착했다. 우리는 궁리갯벌에서 알지 못하는 각종 생물들을 봤다. 정말 신기했다. 선생님께서는 사라져가는 희귀종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돌보기도 봐야 보일 정도로 작았다. 또 죽은 해파리 떼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참 싫었다. 삼각대에 설치해 놓은 망원경으로 갯벌이 갈매기, 왜가리, 백로 등 희새도 관찰했고, 하얀 손수건에 꽃잎 물들이기도 했다. 손수건에 꽃잎과 풀잎을 대고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사물놀이하는 것처럼 절을 들쭉이게 했다. 가을에도 겨울에도 할 수 있다면 생태학교는 계속했으면 참 좋겠다.

불교의 해석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성범스님(www.sejon.or.kr 운영자)

'진화론'을 기독교의 '창조론'에 도전한다고 여기는 사람이거나, 불교의 구사론에서 물질은 '질애(質碍)'로 단정 지어버린 단견 등은 말 그대로 구시대적 이분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서구의 '신과학운동(New science movement)'은 종교와 과학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이 같은 이론과학의 발전을 통해 경전 속에서 말해지던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이 새로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절호의 시절인연을 맞이했습니다. '공(空)'과 '연기(緣起)' 등의 종교적 용어들이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일상적 언어로 충분히 풀이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교는 그 해석과 수행법, 신도교화 방법 등 모든 방면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학사 도전할 것

오승보(청송 감호소)

저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호소에 들어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보내준 사경책 5권을 고맙게 잘 받아보았으며,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열심히 쓰는 등 부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고시반에서 공부하면서 8월초에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학사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이요, 현실이라 생각하고 더러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자비로운 부처님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저의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독자투고

남골 사업, 사찰이 잘 하려면...

병진스님(일산 장안사 주지)

화장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남골 사업을 시작하려는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지금, 먼저 남골 사업을 경험해 본 선혈자로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찰이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자 한다. 남골 사업은 불교 포교 사업과 올바른 장례문화의 확산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 대개 남골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작은 공간에 많은 유골을 안치해 투자비에 비례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갖는, 때돈을 버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찰에서는 외부의 투자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개 분양권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외부의 투자자는 남골 사업을 수익성만 갖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남골당을 짓는 과정에서 분양을 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사찰 측과 투자자 상호간에 불신이 생기게 되고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남골 사업이 효자 사업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둔갑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나중에야 사찰 자체의 운영을 황폐화시키는 경우도 보게 된다. 남골당을 하고자 하는 사찰에서는 기존 종교시설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적게는 100여기, 많게는 500여기 내로 남골 사업을 시작해, 자기 절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남골 시설허가를 받으려 한다는 취지로 관청의 주무담당자를 상대하면 보다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의: (031)901-1954

Advertisement for Buddhist pilgrimages. Title: 불자님들을 위한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Content: 3박4일 749,000 to 449,000; 4박5일 899,000 to 599,000. Includes details about destinations like Odaesan and Mt. Inwang, and contact information for Hanjin Travel and BBS.

Table of flight schedules for Buddhist pilgrimages. Columns: Date, Departure/Arrival, Airline, Time, Itinerary, and Meal. Includes details for Odaesan and Mt. Inwang pilgrimages.